

한국가족 정신건강 진단검사의 요인구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박 영 숙

= Abstract =

A Study on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Family Mental Health Test(K-FMHT)

Young Sook Park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purported to evaluat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Family Mental Health test(K-FMHT), which was a self-report questionnaire composed of 67 items and developed for measuring the degree of mental health and psychopathological traits of the families by the comprehensive dimensions.

Methods : K-FMHT was administered to 476 married women subjects from normal families. A factor analysis revealed the 10 factor structure to be appropriate which determined by clinical, logical and statistical basis that included the pretest items expected empirically.

Results :

1) It was founded that the 10 factors item composition of K-FMHT satisfied the content validity through factor analysis and explained 50.1% of total variances.

2) 10 factors of K-FMHT have sufficient eigenvalues respectably and the factor loadings of total items were significantly high.

3) Factor 1 explained 18.8% of variance and the other factors 6.4 – 2.4% of variance.

4) Factor namings were determined which based the examination of the item contents : factor 1-open heartedness within family, factor 2-family relationship of emotional disharmony, factor 3-conflict relationship with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factor 4-sexual relationship of couple, factor 5-the filial devotion toward parent, factor 6-openness toward community, factor 7-patriarchic family, factor 8-living together of family members, factor 9-parent attachment toward children, factor 10-parent unconditional love toward children.

5) Some limitation and future requirements are discussed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K-FMHT.

Conclusions : It was suggested that factor 5, 10 need to supplement more items for increasing the validity of K-FMHT through the complementary work.

KEY WORDS : Family evaluation · Family mental health · Validity · Factor analysis.

서 론

한국가족은 가족원 개인보다는 가족집단을 우선으로 하여, 가족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가족원 개인의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가족주의 규범에 기초한 한국가족의 안정성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왔었다¹⁾. 그러나 근래 한국가족은 이혼율의 증가나 청소년 비행, 그리고 노년층의 극심한 소외,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간의 가족의식의 갈등이 한국가족의 심각한 변화 및 위기상황을 알리는 징표로서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 위기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과 적절한 대처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²⁾.

임상장면에서 가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요구되는 이유는 가족이란 개인의 인격 형성 및 개인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³⁾, 불안정하고 혼란된 가족관계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정신장애의 발생에 있어서도 선행요인이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거나 미친다는 점이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가족의 극심한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가족의식의 혼란과 가족관계의 갈등은 정신병리 발생에 있어서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현재 임상장면에서 가족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개발되고 있는 가족검사들을 검토해 보면 한국 가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가족 진단검사가 활발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한국가족의 특수성이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문항이 작성된 한국형 가족검사가 아닌 외국에서 제작된 가족검사들을 평가도구로서 사용하여 왔다⁵⁻¹³⁾. 외국에서 개발된 가족검사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장점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까지 인식되어 온 한국가족의 여러 특성을 고려할 때 과연 외국에서 개발된 가족검사들이 한국가족을 타당성있게 평가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 가족 정신진단검사는 정신장애자가족과 정상가족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 결과와 건강한 가족에 대한 정의를 검토한 결과¹⁴⁾를 기초로 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족과 문제가 있는 가족을 진단해 내기 위한 목적에 따라 제작되었고 일차적으로 검사의 신뢰도가 검증

되어 보고된 바 있었다¹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는 한국가족 정신건강 진단검사가 경험적, 논리적 근거에 의해 의도되었던 예비문항들이 동일한 척도로 구성되고 있는지, 독립적인 요인으로 집락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는 한국 가족에 대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제작되었던 가족 정신진단검사의 요인구조를 요인분석에 의해 검토함으로써 검사의 하위 척도 구성 내용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또한 검사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본 검사에서는 응답 대상자를 주부로 한정하였고 조사 지역은 서울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467명이었다. 대상자 표집은 응답이 전체 인구연령 구성비율,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에 맞추어 고르게 표집하였다. 피검사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특수 사회계층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학교나 특수 지역사회는 배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정신건강검사는 1995년 2월부터 1차 예비연구와 2차 예비연구를 통하여 문항분석이 이루어졌고 3차 연구단계에서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가족 정신건강검사는 가족의 정신건강 및 정신병리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특징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검사 제작과정에서는 저자 뿐만 아니라 가족사회학자, 정신과전문의로 구성된 자문팀에 의해 한국 가족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 건강한 가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회, 정신장애자가족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장애자가족들과의 토론회, 기타 가족검사들의 문항 내용 분석을 거치면서 예비문항이 준비되었다. 예비문항분석을 보면 각 문항간 상관계수, 신뢰도 알파계수를 산출하면서 문항을 수정한 결과 1차 예비검사 문항 199개에서 98개 문항으로 축소되었고 2차 문항 분석에서 74개 문항으로 줄었다.

요인분석은 74개 문항들이 원래 의도했던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항인지, 피검사자들이 이러한 문항들을 읽고 응답할 때 문항들의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응답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또한 문항들이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시도되었

다.

요인분석은 주요 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방식에 따랐고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하고 요인 부하량이 0.3 미만인 문항들을 제거하였고, 요인과 문항간 상관이 부적인 문항들도 재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문항을 제거한 결과, 전체 문항수는 74개 문항에서 67개 문항으로 줄어 들었다. 이후의 요인분석과정을 보면 일차적으로 주요 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을 통하여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할 때 25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25개요인의 구성 내용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다. 첫째는 Scree 검사표를 적용하여 점검하였다. 둘째는 임상적인 관점과 구성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셋째는 본검사의 실용적인 목적에 따라 문항 내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제작되는 가족검사가 가족상담장면에서 일차적으로는 가족의 특징을 평가해주고 이와 동시에 가족이 지니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요소도 진단해 주는 진단적 목적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요인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서 분석한 결과 10개 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사용된 가족 정신건강검사는 67개 문항들이 10개 요인으로 집락되었고 이 10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0.1%를 설명해 주고 있었다.

본 가족 정신건강 진단검사는 응답자가 질문 내용을 읽고 5점척도로 구성된 응답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Table 1. 요인 1(가족내적 개방성)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	우리 가족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7220
2	우리 가족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먼저 가족과 의논한다.	.7060
3	우리 가족은 장래를 위해서 의논하거나 계획한다.	.6543
4	나는 아이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6307
5	나는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	.5885
6	우리 가족들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	.5206
7	우리 가족들은 함께 책임을 나눈다.	.5051
8	우리 가족들은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 서로 힘이 되어 준다.	.4745
9	우리 가족들은 화기에 애해다.	.4665
10	우리 가족은 예산에 맞추어 돈을 규모있게 쓴다.	.4607
11	남편은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4597
12	우리가족들은 서로 어디에 있는지, 집에 언제 들어오는지알고 있다.	.4353
13	우리 가족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3703
	아 이 겐 값	12.6672
	설 명 변 량	18.9

결 과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주부집단의 일반적 배경을 보면 연령별로는 30대 47.5%, 40대 42.1%, 50대 이상 10.4%였고, 교육수준별로는 국졸 0.2%, 중졸 11.3%, 고졸 41.7%, 대졸 43.9%였으며, 생활수준별로는 상위층 34.8%, 중위층 63.7%, 하위층 10.7%였다.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10개 요인들 각각의 문항 구성 내용, 설명변량, 요인내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이 Table 1부터 Table 10까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각 요인내 포함된 문항 내용들을 검토하여 요인의 이름이 고안되었다. 다음 Table 1에는 요인 1의 분석 결과가 문항 구성 내용, 설명변량, 각 문항들의 요인 부하량으로 제시되고 있다. 요인 1의 설명변량은 18.9%였으며,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37~.72 범위에 있었다.

요인 1의 구성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서로 터놓고 함께 경험을 나누거나 책임을 공유하거나 장래를 의논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우리 가족들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 놓는다”, “우리 가족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먼저 가족과 의논한다”, “우리 가족은 장래를 위해서 의논하거나 계획한다”, “나는 아이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였다. 요인 1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가족 내부의 개방적 분위기, 가족간 개방적 관계가 핵심 내용이므로 가족내적 개방성이라고 명명되었다.

Table 2에는 요인 2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 요인 2의 설명변량은 6.4%였고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34~.61이었다.

요인 2의 구성내용을 보면 “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새로 결혼한다면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우리 부부는 늘 사랑한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들은 감정이 폭발하여 싸우게 된다” 등과 같이 정서적 관

계를 나타내는데, 불만스럽고 불안정한 가족관계나 만족스럽고 안정된 가족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요인 2에 속하는 문항들은 부부간이나 가족들사이의 불화, 불만, 감정 충돌이나 갈등을 나타낸다고 생각되어 “정서적 불화관계”라고 명명되었다.

Table 3에는 요인 3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결과를 보면 요인 3의 설명변량은 4.1%이고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49~.77로 양호한 편이었다.

요인 3의 문항들은 고부 갈등을 반영하는 내용들로서 “시어머니는 우리 가정 일에 일일이 간섭하신다”, “시어머니는 나를 자주 야단치신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흉을 자주 보신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에게 잘 대접받지 못한다고 속상해 하신다”, “나는

Table 2. 요인 2(정서적 불화관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	나는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6144
2	나는 새로 결혼한다면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	.6083
3	우리 부부는 늘 사랑한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5914
4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족들은 감정이 폭발하여 싸우게 된다.	.5697
5	우리 부부는 애정보다는 의무감에서 함께 살고 있다.	.5619
6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야단칠 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5175
7	남편은 화가 날 때 폭력을 휘두른다.	.5141
8	우리 가족들은 화가 날 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순다.	.5083
9	우리 부부는 아이들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가 많다.	.4961
10	우리 부부는 서로 평등한 관계이다.(-)	.4306
11	우리 가족들은 무엇보다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3405
	아 이 겐 값	4.3182
	설 명 변 량	6.4

*(-): 문항 내용이 부정 문항임을 나타냄

Table 3. 요인 3(고부갈등)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	시어머니는 우리 가정 일에 일일이 간섭하신다.	.7763
2	시어머니는 나를 자주 야단치신다.	.7422
3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흉을 자주 보신다.	.6976
4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에게 잘 대접받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신다.	.6867
5	시어머니는 결혼한 아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한다.	.6639
6	나는 시어머니에게 걸로만 복종하는 척 하는 경우가 많다.	.6360
7	남편은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시어머니 편만 든다.	.5603
8	시어머니는 결혼한 아들(나의 남편)을 아직도 어린애처럼 돌봐주고 싶어하신다.	.5202
9	나는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처럼 편하다.(-)	.4956
	아 이 겐 값	2.7616
	설 명 변 량	4.1

*(-): 문항 내용이 부정 문항임을 나타냄

시어머니에게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 하는 경우가 많다” 등과 같았다. 요인 3은 “고부 갈등”이라고 명명되었다.

다음 Table 4에는 요인 4의 분석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결과에 의하면 요인 4의 설명변량은 3.7%이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64~.73에 속하고 양호한 편이었다.

4 요인에 속하는 문항내용을 보면 “우리 부부는 성생활에 대해 서로 만족감을 느낀다”, “나는 성관계를 가질 때 쉽게 반응하지 못한다”, “나는 성관계에 대해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 “남편은 성관계를 가질 때 여유가 없고 조급하다” 등과 같이 부부간 성관계에서의 만족감이나 불안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따라서 요인 4는 “부부 성관계”로 명명되었다.

Table 5에는 요인 5의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결과에서 보면 요인 5의 설명변량은 3.6%이고 각 문항

의 요인 부하량은 .64~.73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요인 3의 문항들은 효도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으므로 “효도”라고 명명되었다.

다음 Table 6에는 요인 6의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요인 6의 설명변량은 3.4%이고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47~.69에 속하고 양호한 수준이었다.

문항 내용들을 보면 가족이 외부 사회나 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상호 교류하는 개방성에 관련된 내용들로서 “우리 가족들은 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우리 우리 가족들은 이웃과 자주 도움을 주고 받는다”, “우리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등과 같이 가족이 폐쇄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나 다른 가족과 활발한 접촉이나 교류를 갖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요인 6은 “가족의 외적 개방

Table 4. 요인 4(부부 성관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	우리 부부는 성생활에 대해 서로 만족감을 느낀다.	.7346
2	나는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때 쉽게 반응하지 못한다. (-)	.7333
3	나는 성관계에 대해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다. (-)	.7021
4	남편은 성관계를 가질 때 여유가 없고 조급하다. (-)	.6616
5	우리 부부는 성관계를 통하여 일체감을 느낀다.	.6423
아 이 겐 값		2.4660
설 명 변 량		3.7

*(-): 문항 내용이 부정 문항임을 나타냄

Table 5. 요인 5(효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	우리는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다.	.7301
2	우리는 친정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돌봐드리고 있다.	.6775
3	우리는 시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돌봐드리고 있다.	.6755
4	우리는 친정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다.	.6467
아 이 겐 값		2.4100
설 명 변 량		3.6

Table 6. 요인 6(가족적 외적 개방성)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	우리 가족들은 사회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6976
2	우리 가족들은 이웃과 자주 도움을 주고 받는다.	.6729
3	우리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6383
4	우리 가족들은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5322
5	우리 가족들은 친척들의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4814
6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까운 친구들을 잘 알고 있다.	.4773
아 이 겐 값		2.2587
설 명 변 량		3.4

Table 7. 요인 7(가부장제 가족)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	남편은 빨래나 부엌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7389
2	우리 가족은 남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6055
3	우리 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이 구별되어 있다.	.5811
4	우리 집안의 경제권(돈의 용도 결정 및 사용권)은 남편에게 있다.	.5311
5	남편은 자신이 부당하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참기를 바란다.	.4881
6	남편은 명절날 시댁에만 가고 친정에 못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4462
아 이 겐 값		1.8364
설 명 변 량		2.7

Table 8. 요인 8(함께 지내는 시간)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	우리가족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일이 드물다. (-)	.6327
2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함께 지낼 시간이 거의 없다 (-)	.6054
3	우리가족들은 각자 방에 들어앉아 혼자 지내는 일이 많다. (-)	.5539
4	남편은 아이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5118
5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웃는 경우는 드물다. (-)	.4345
아 이 겐 값		1.6822
설 명 변 량		2.5

*(-): 문항 내용이 부정 문항임을 나타냄

성"이라고 명명되었다.

다음 Table 7에는 요인 7의 요인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요인 7의 설명변량은 2.7%이고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47~.69 범위였다.

문항 내용들을 보면 가부장제 가족 특징을 반영하는 내용들이었다. 문항 내용들을 보면 “남편은 빨래나 부엌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남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우리 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할 일이 구별되어 있다”, “남편은 자신이 부당하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참기를 바란다” 등과 같이 가부장제 가족내에서 가장의 권위적 행동이나 엄격한 성역할 구별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요인 7은 “가부장제 가족”이라고 명명되었다.

Table 8에는 요인 8의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요인 8의 설명변량은 2.5%이고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3~.63 범위였다.

문항 내용을 보면 “우리가족들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일이 드물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함께 지낼 시간이 거의 없다”, “우리 가족들은 각자 방에 들어앉아 혼자 지내는 일이 많다” 등과 같이 가족이 함께 시간은 보내면서 지내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요인 8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라고 명명되었다.

Table 9에는 요인 9의 분석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요인 9의 설명변량은 2.5%이고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은 .40~.64 범위였다.

내용을 보면 “아이들은 내 인생의 거의 전부일만큼 중요하다”, “나는 우리집 아이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직접 골라줄 생각이야”, “나는 우리집 아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가까이서 돌봐주고 싶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등과 같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과 집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요인 9는 “자녀 애착”이라고 명명되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고 부모 자신 보다 자녀를 우선적으로 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는 헌신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Table 10에는 요인 10의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요인 10의 설명변량은 2.3%로 낮은 수준이지만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63~.70 범위로서 양호하였다.

내용을 보면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면 그대로 들어줄 때가 많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들어준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주장하면 대부분 아이들 주장대로 따라 간다” 등과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 과잉 보호, 또는 자녀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성등이 나타난다고 보여지

Table 9. 요인 9(자녀 애착)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	아이들은 내 인생의 거의 전부일만큼 중요하다.	.6471
2	나는 우리집 아이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직접 골라줄 생각이다.	.6185
3	나는 우리집 아이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가까이서 돌봐주고 싶다.	.6046
4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4345
5	우리 부부에게는 부부간 애정보다 아이들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	.4046
	아 이 겐 값	1.6565
	설 명 변 량	2.5

Table 10. 요인 10(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1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면 그대로 들어줄 때가 많다.	.7027
2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들어준다.	.6721
3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주장하면 대부분 아이들 주장대로 따라 간다.	.6322
	아 이 겐 값	1.5231
	설 명 변 량	2.3

므로 요인 10은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이라고 명명되었다.

고 찰

본 연구는 가족 정신건강검사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사의 내용 타당도 및 구성 타당도 검증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가족정신건강 진단에 유용한 문항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족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적 차원이나 진단적 차원, 그리고 치료적 차원에서 다양한 전문적 개입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당성있는 가족 정신건강 진단검사는 궁극적으로 한국가족문제의 특성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 정신건강검사는 요인분석 결과 10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별 아이겐값을 보면 12.6~1.5 범위에 있었고, 각 요인별 설명변량은 18.9~2.3% 범위에 있었다. 요인부하량이 높게 걸리는 각 요인내 문항을 중심으로 문항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각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명명될 수 있었다: 요인 1-가족내적 개방성, 요인 2-정서적 불화관계, 요인 3-고부갈등, 요인 4-부부성관계, 요인 5-효도, 요인 6-가족의 외적 개방성, 요인 7-가부장제 가족, 요인 8-함께 지내는 시간, 요인 9-자녀 애착, 요인 10-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 각 문항

별 요인부하량은 전체적으로 .34~.77 범위에 있었다. 이와같이 모든 문항의 부하량을 볼 때 의미 있음을 나타내는 전통적 기준인 .30을 넘는 수준에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문항들의 부하량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

이상과 같은 본 연구결과를 재검토해 보면 몇개 예외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예비검사에서 의도했던 하위 척도들이 요인분석 결과 독립적인 요인으로 밝혀짐으로써 각 요인내 문항 내용들은 임상 경험과 논리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기대되었던 바와 같은 요인구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원래 의도했던 하위 척도가 누락된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의 기능 및 가족 역할에 관한 문항 내용들이 독립된 요인으로 집락되지 않았고, 둘째, 가족의 문제해결방식 또는 문제대처방식에 관한 내용들도 독립적인 요인으로 집락되지 않았고, 셋째,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대화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들 역시 독립된 요인으로 집락되지 않았다. 반면에 가족이 대화하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가족 내적 개방성, 가족이 함께 시간 보내기, 가족간 또는 부부간 정서적 불화관계, 부부 성관계, 고부갈등, 가부장제 및 효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착, 부모의 무분별한 자녀에 대한 애정은 독립적인 요인으로 집락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내용별로 다시 크게 묶어 본다면 가족관계와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 특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이와같이 가족관계나 전통적 가족 특징에 관한 내용은 원래의 의도대로 요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가

족 기능이나 가족내 역할에 관한 문항 내용들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가족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시사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즉 한국가족은 가족관계 측면은 현실적으로 주요한 측면이지만 가족 기능이나 가족내 역할에 대한 개념은 잘 정립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의식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관계에서 대화관계와 관련된 문항들도 독립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애착과 자녀에 대한 구분별한 애정만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적 부모-자녀관계에서 애착과 구분별한 애정만이 두드러진 반면, 대화하는 부모-자녀관계는 현실적으로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현상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문항간의 상관성이 없거나 충분한 수의 문항이 들어있지 않거나 혹은 피검사들에 의해 문항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기능, 가족내 역할, 대화하는 부모-자녀관계의 문항들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은 이유가 문항 선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러한 요인에 대한 피검사들의 미분화의 문제인지는 추후 연구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검토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앞서 논의된 내용들은 한국가족관 특징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성있는 추론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논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해 본다면 한국가족의 특성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panier¹⁷⁾는 부부적응척도 Dyadic Adjustment Scale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Locke와 Williamson¹⁸⁾가 시행했던 요인분석 결과와 차이있게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결혼적응방식의 차이에 따라 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에 대한 Spanier의 해석은 본 연구에서 기대했던 가족 기능이나 역할,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논의되어야 할 점은 가족 정신건강검사의 각 요인의 아이겐 값과 각 문항들의 요인부

하량은 전체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설명변량을 검토해 볼 때 제 1요인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설명변량이 낮은 경향이 있고 특히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되는 요인 9과 요인 10의 설명변량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Bloom¹⁹⁾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4 가족검사 Family Environment Scale(FES)²⁰⁾, Family-Concept Q Sort(FCQS)²¹⁾,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FACES)²²⁾, Family Assessment Measure(FAM)²³⁾를 4회 연속적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15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 15개 요인을 크게 3개 차원으로 묶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가족관계차원, 개인 성장이나 가치관차원, 체제유지차원. 이러한 3개 차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가족검사를 요인분석 한 결과로 추출된 것이므로 매우 포괄적으로 가족의 차원들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가족의 차원과 비교해 볼 때 정신건강검사는 가족관계 차원은 요인분석 결과 뚜렷한 독립적인 요인으로 묶이고 있으며 체제유지차원은 가부장제요인이나 가족내적 개방성요인에 의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족관계차원을 재검토해보면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가장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족 정신건강검사에서 부모-자녀관계요인이 설명변량이 낮고 아이겐값도 낮다는 점은 앞으로 부모-자녀관계 문항들이 보다 보완되고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밝혀지고 있는 포괄적인 가족검사 차원에 비추어 볼 때 한국가족의 특성상 가족관계에 관한 문항들이 가장 선명한 독립적 요인으로 추출되고 있는데,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요인구조는 임상적으로는 타당한 내용이지만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양호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족검사를 제작할 때 지적되고 있는 점은 가족검사는 개인용 심리검사와 다르게 질문지형검사만으로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질문지형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다원적 평가방법, 다수준적 평가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즉 질문지에 피검사자가 응답하는 방식을 보완하는 행동관찰법을 병행할 경우 평가 내용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입장에서, 부부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사회적 조망에서 가족생활을 평가할 경우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4,26)}. 이러한 점 외에도 임상적으로 관찰되

는 한국가족의 폐쇄성과 특히 가족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개방적이지 못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족의 정신건강검사만으로는 가족평가의 제한점이 있다는 점을 예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형 가족검사가 타당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표준화될 수 있으려면 검사 개발과정에서 임상적,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작된 가족검사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검증하여 검사를 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가족 정신건강검사에서도 특히 부모-자녀관계척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문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적은 문항 수로 구성되더라도 신뢰도나 타당도가 충분한 심리검사가 바람직하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요인별 문항 수 조정이 요구되며 문항 수가 지나치게 적은 척도 5의 경우 문항 보충이 요구된다.

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가족 정신건강 진단검사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사의 요인구조를 분석해 보고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가족 정신건강검사는 가족의 다각적인 특징을 평가함으로써 정신건강 및 정신병리 정도를 예측하게 해주는 스크린용 검사로서, 자가-응답방식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피험자인 정상가족 주부 467명을 대상으로, 검사의 구성 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해 보고자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

1) 가족 정신건강검사의 요인구조로서 10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0개 요인의 설명 변량은 전체 변량의 50.1%였다.

2) 각 요인은 기대되었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각 요인별 아이젠 값, 각 문항별 요인부하량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요인별 설명변량을 보면 요인 1의 설명변량이 18.9%였고 다른 요인의 설명변량은 6.4~2.4% 범위에 있었다.

4) 각 요인은 요인별 구성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각 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칭이 주어졌다 : 척도 1-가족

내적 개방성, 척도 2-정서적 불화관계, 척도 3-고부 갈등, 척도 4-부부성관계, 척도 5-효도, 척도 6-가족 외적 개방성, 척도 7-가부장제 가족, 척도 8-가족이 함께 지내기, 척도 9-자녀에 대한 애착, 척도 10-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

5)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족 정신건강검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과 가족검사 제작시의 유의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 론 :

요인분석을 통하여 한국가족 정신건강 진단검사의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요인 5, 요인 10에 해당되는 문항들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References

- 1) 김정옥 · 김순옥 · 정현숙 · 한경혜 : 이혼과 가족문제. 도서출판하우, 1993 : p15-28
- 2) 전병재 : 위기에 선 가족. 서울, 다산출판사. 1994 : p11-44
- 3) Ackerman N : *The psychodynamics of family life.* In Bloch S, Hafner J, Harari E, Szmulker GI : *The family in clinical psychiat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p4-46
- 4) Beavers W : *Healthy, midrange, and severy dysfunctional families.* In Walsh F : *Normal family process.* New York, Guilford Press, 1982 : p45-66
- 5) Goldstein MJ : *Family factors that antedate the onset of schizophrenia and related disorder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985 ; 319 : 7-18
- 6) Jackson DD : *Schizophrenia-the nosological nexus.* In *The new Harvard guid to psychiatr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p259-293
- 7) Litz T : *The intrafamilial environment of the schizophrenic patient.* Am J Psychiatry 1957 ; 114 : 241-248
- 8) Bateson G, Jacson DD, Haley J, Weakland J : *Toward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v Sci 1956 ; 1 : 251-264
- 9) 신유오 · 조수철 : 한국형 가정환경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1995 ; 34(1) : 280-290
- 10) 왕석순 : 부부간의 의사소통 불안의식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11) 김진희 :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 응집성

-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12) 이문행 :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13) 윤찬정 : 가족의 기능성과 개인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14) 이근후 · 박영숙 : 정신장애자가족과 정상가족의 사회심리적 특성 - 정신장애자가족과 정상가족의 비교. 집문당, 1996 : p7-15
 - 15) 박영숙 : 가족진단검사의 제작을 위한 신뢰도연구. 이화의대지 1996 ; 19(3) : 383-394
 - 16) Nunnally IC : *Psychometric theory*(2nd ed). New York, McGraw-Hill : 1978, p138-142
 - 17) Spanier GB :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 Marriage and the Family* 1978 ; 38 : 15-25
 - 18) Locke HJ, Williamson RC : *Marital Adjustment : A Factor Analysis Study*. *Am Socio Rev* 1958 ; 23 : 562-569
 - 19) Bloom BL : *A Factor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Process* 1985 ; 24(2) : 225-239
 - 20) Moos RH, Moos BS : *A Typology of Family Social Environments*. *Fam Proc* 1976 ; 15 : 357-371
 - 21) Vander Veen, F : *The Parent's Concept of the Family Unit and Child Adjustment*. *J Counsel Psychol* 1965 ; 12 : 196-200
 - 22) Olson DH, Sprenkle DH, Russell, CS :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 Proc* 1979 ; 18 : 3-28
 - 23) Skinner HA, Steinhauer, PD, Santa-Barbara, J : *The Family Assessment Measure*. *Can J Com Ment Health* 1983 ; 29 : 77-88
 - 24) Cromwell R, Olson DH, Fournier D : *Tools and Techniques for Diagnosis and Evaluation in Marital and Family Therapy*. *Fam Proc* 1976 ; 15 : 1-49
 - 25) Filsinger EE : *Choices among Marital Observation Coding Systems*. *Fam Proc* 1983 ; 22 : 317-335
 - 26) Touliatos J, Perlmutter BF, Straus MA : *Handbook of Family Measurement Techniques*.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 Inc. 1990 : p26-36